



남주혁·신세경 주연 ... tvN '하백의 신부'

“원작과 다르지만 재밌어요”

윤미경 작가 만화 재해석
신과 인간의 코믹 로맨스
다음달 3일 첫 방영

“원작이 워낙 사랑받은 작품이라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다음 달 3일부터 tvN에서 방송하는 월화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에서 물의 신(神) 하백(남주혁 분)과 로맨스를 펼칠 여사 소아 역의 배우 신세경(27)은 27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신부’는 출간 당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윤미경 작가의 동명 만화를 2017년 현대에 맞춰 재해석한 스펀오프 격 드라마다.

1998년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단발머리를 선보인 신세경은 원작 속 여주인공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신세경은 이에 대해 “만화 속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높으나 같은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워낙 재밌는 대본이라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 설정도 마음에 들었고, 인물의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과정, 로맨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친절하게 설명되는 작품”이라며 “대신 CG(컴퓨터그래픽)로 펼쳐지는 장면이 많아 연기할 때 상상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단발머리로 변신한 데 대해서 “스타일리스트의 추천으로 단발을 해봤는데 가볍고 편안하다”며 “다시는 머리를 못 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한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4살 아래인 남주혁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일찍 데뷔해서 항상 현장에서 막내였는데 이렇게 누나가 돼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격정도 됐다”며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 즐겁다”고 말했다.

“원작 만화 속 하백과 싱크로율이 높으니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부담도 됐지만 대본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주혁(23)은 “처음에 물의 신 하백 역할을 맡았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네가?’였다”며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제 사주에 물(水)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작품에서는 계속 물과 연관된다”며 “부족

한 물을 연기로 채우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남주혁은 신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외모 관리를 특별하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변에서 워낙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셔서 대본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주혁은 사전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대사 톤이 언뜻 ‘도깨비’ 속 공유와 비슷한 것 같다는 질문에는 “연기를 참고했다기보다는, 대본을 느끼는 대로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톤이 나오더라”며 “저만의 하백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세경과의 호흡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마는 ‘인현왕후의 남자’,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을 연출했던 김병수 감독과 ‘미생’을 통해 필력을 인정받은 정운정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간 세상에 와서도 오만방자한 하백과, 대대손손 신의 종으로 살 운명임에도 현실주의자인 착하는 소아의 코믹 판타지 로맨스가 주를 이룬다.

신세경과 남주혁 외에도 임주환, 정수정(크리스탈), 공명 등 청춘스타들이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수국, 천국, 지국으로 이뤄진 신계와 인간계라는 광범위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다만 김병수 PD는 “수국을 드라마 영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조금만 다했다”며 “그래서 원작의 주인공 이름과 직업,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용해 스펀오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7월 3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습뉴스



▲ ‘하백’ 역 남주혁 ‘소아’ 역 신세경



원로배우 신성일
폐암 3기 진단

통원치료 병행 일정 소화

영화 촬영은 내년으로 연기

원로배우 신성일(80·사진) 씨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지난 2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3기 진단받고 통원 치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침이 심해져 대구의 지역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며 “30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종양 크기를 축소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씨는 “다행히 아직 암이 여러 개로 퍼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 씨는 1982년 담배를 끊었으며 경북 영천의 자연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신 씨는 “그동안 술을 멀리하고 매일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각종 영화계 행사에 참석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 그는 앞으로도 통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획된 일정을 계속 소화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리는 배우 김지미 특별상영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올가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준비 중인 자신의 회고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됐던 영화 ‘행복’ 촬영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이 영화는 영화 ‘황금연못’을 각색한 작품으로 다음 달 촬영에 들어가 예정이었던,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병원에서도 그때쯤이면 괜찮겠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부인인 배우 엄앵란 씨가 2015년 12월 TV 건강프로그램 녹화 중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옆에서 내내 지켜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엄 씨는 암 재발을 막는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신 씨는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맨발의 청춘’, ‘조우’, ‘별들의 고향’ 등 5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고, 지난 2013년에는 영화 ‘아라문’으로 칸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연습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EBS1),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9일(음 5월 6일 丁亥).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